

세계무대 큰 격차... “야구대표팀 재정비 서둘러야”

WBC 3연속 1라운드 탈락 충격

일본에 콜드게임패 직전까지 몰려 국제 경쟁 급락... 처참한 투수력 “인재 발굴·선수 육성 시스템 정비”



한국 야구가 월드베이스볼 클래식(WBC)에서 3개 대회 연속 1라운드 탈락의 수모를 겪으며 대회를 마무리했다. 2009년 이후 14년 만에 4강 진출을 목표로 삼고 최고의 선수들을 선발했지만 세계야구와 큰 격차를 다시 확인했다.

이강철 감독이 이끄는 한국 야구 대표팀은 2023 WBC 1라운드에서 2승 2패를 기록, B조 3위에 그쳐 상위 2개 팀에 주어지는 2라운드(8강)행 티켓을 거머쥐지 못했다.

한국 야구는 2013년, 2017년에 이어 3개 대회 연속 1라운드에서 탈락하면서 처참한 현실과 다시 한 번 마주했다.

한국은 당초 호주와 체코, 중국을 잡고 8강에 진출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한국야구대표팀 선수들이 지난 13일 일본 도쿄돔에서 열린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WBC) 2023 B조 중국과의 경기에서 5회말 22-2 콜드게임 승리를 거둔 뒤 더그아웃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시

첫 경기부터 꼬였다. 한 수 아래로 평가하던 호주에 7-8로 패배하면서 8강행에 적신호가 켜졌다. 압박감이 더 커진 상황에서 치른 한일전에서는 4-13으로 대패하는 수모를 당했다.

생업이 따로 있는 선수들로 구성된 체코를 상대로도 압도하지 못하고 7-3으로 진땀을 흘렸다. 8강 진출 탈락이 결정된 뒤 만난 중국을 상대로 화력을 발휘하며 22-2, 5회 콜드게임 승리를 거뒀지만 한국은 이번 대회를 통해 현저하게 떨어

진 국제 경쟁력을 확인했다. 프로 선수가 참가하는 주요 대회에서 한국이 호주에 진 것은 2007년 대만 야구월드컵 예선 이후 16년 만의 일이었다. 일본과의 경기에서는 벌어진 실력차를 절감했다.

한국은 2015년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WBSC) 프리미어12 결승에서 일본에 역전승을 거두며 우승했지만, 2019년 프리미어12에서는 예선, 결승에서 모두 일본에 졌다. 2021년 열린 2020 도쿄올림픽에서도 일본과 접전을 벌인 끝에 패배

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콜드게임 패배 직전까지 몰리는 수모를 당했다.

이번 대회에서 대부분의 한국 투수들은 자신감을 잃고 허둥댔고, 타자들은 허명뿐이라는 것을 증명했다. 이강철 감독의 마운드 운용 등 용병술도 대회 내내 불안 요소로 지적됐다.

과거 한국은 탄탄한 마운드를 앞세워 국제대회에서 호성적을 냈지만, 이번 대회에서 보여준 투수력은 실망스러웠다. KBO리그 최고 선수들을 불러모아 최상의 전력을 꾸렸지만, 처참히 무너졌다.

호주전에서는 상대 타자들의 파위를 감당하지 못했다. 한국 마운드는 홈런을 3방이나 허용하면서 녹다운됐다.

일본과의 경기에서는 장단 13안타를 맞았을 뿐 아니라 8개의 볼넷을 내주면서 자멸했다. 3회 양의지의 투런포 등으로 3점을 뺏고도 대패를 피하지 못했다.

일본 투수들이 시속 160km가 넘는 강속구에 안정적인 제구까지 선보인 반면 한국은 시속 150km를 넘기는 투수도 찾아보기 힘들었다.

제구력은 더욱 심각했다. 한국 투수들

은 초구 스트라이크를 좀처럼 던지지 못했다. 스트라이크존을 크게 벗어나는 공도 적잖았다. 체코전에서는 폭투로 점수를 주는 일도 있었다.

타자들도 아쉽기는 마찬가지였다. 이정후, 양의지 정도만 수준 높은 투수들을 상대로 경쟁력을 보였을 뿐, 나머지 타자들은 현격한 수준 차이를 보여줬다.

생소한 투수들에 대처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빠른 공에는 여지없이 방망이를 휘둘렀다. 호주전에선 경기 시작 후 13명의 타자가 연속 번타로 몰려나기도 했다.

이번 WBC를 통해 암울한 현실이 그대로 드러난 한국 야구는 이제 4강에 올랐던 1, 2회 WBC와 2008 베이징올림픽의 영광은 잊고, 인재 발굴과 선수 교육 및 육성 등 근본적으로 야구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할 시기가 왔다.

중국전을 마친 이강철 감독은 “1, 2회 WBC 때는 확실하게 나갈 수 있는 1선발을 정할 수 있었다. 이번에 야수보다 투수 쪽 성적이 안 좋았다. 확실한 선발투수를 정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성적이 안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최동환 기자·뉴스시

광주FC 유스 4인방, 연령별 축구대표팀 발탁

엄지성·허율·조성권 대표팀 승선 23일부터 도하컵 U-22 친선대회 정호연, 아시안게임 대표팀 선발



프로축구 광주FC 유스 4인방이 연령별 축구 대표팀에 발탁됐다.

광주FC U-18 금호고 출신 엄지성(21)과 허율(22), 조성권(22)은 파리올림픽 대표팀(22세 이하)에, 정호연(23)은 항저우 아시안게임 대표팀(24세 이하)에 각각 선발됐다.

대한축구협회는 지난 13일 카타르 원정 평가전에 나서는 파리 올림픽 대표팀과 항저우 아시안게임 대표팀 명단을 발표했다.

이번에 소집된 대한민국 U-22, U-24 대표팀은 각각 파리 올림픽과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대비한다.

금호고 출신 엄지성과 허율(이상 광주 FC), 조성권(김포FC)은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올림픽 대표팀에 이름을 올렸다.

광주FC 에이스 엄지성은 지난 2021년 광주에서 프로 데뷔해 세 시즌 동안 67경



엄지성 허율 조성권 정호연

기 13골 2도움을 기록했다. 특히 지난 시즌 K리그2에서 28경기 9골 1도움의 활약을 펼치며 팀 우승에 기여, 영플레이어상과 미드필더 부문 베스트 11까지 수상하는 등 최고의 한해를 보냈다.

프로 4년차를 맞이하는 허율은 강력한 피지컬을 활용한 연계플레이와 헤더, 날카로운 왼발슛이 장점인 스트라이커다. 지난 시즌 위기의 순간마다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하며 33경기 6골 4도움으로 팀 승격에 기여했다.

금호고 졸업 후 울산대에 진학한 조성권은 182cm·70kg의 탄탄한 피지컬을 바탕으로 대인방어, 커버 능력이 뛰어난 중앙 수비수다. 뛰어난 리더십으로 고교와 대학 무대에서 주장 완장을 차기도 한 그

는 지난해 말 광주에 입단해 올해 2월 김포FC로 임대 이적했다.

광주FC의 ‘살림꾼’ 정호연은 항저우 아시안게임 대표팀에 승선했다. 정호연은 지난해 왕성한 활동량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압박과 투지, 공수 전환의 연결고리 역할을 맡으며 프로 첫 해만에 36경기 1골 4도움을 기록하는 등 광주의 주축선수로 성장했다.

올림픽 대표팀은 오는 23일부터 카타르 도하에서 열리는 2023 도하컵 U-22 친선 대회에 참가한다.

항저우 아시안게임 대표팀도 함께 카타르 원정을 떠나 중동 팀과 연습경기 형식으로 두 차례 평가전을 치를 예정이다. 두 팀은 20일 소집돼 곧바로 출국하고 29일 귀국한다. 한규빈 기자



광주체고 핀수영, 전국학생선수권 무더기 메달

금 6·은 3·동 2개 수확 황윤영 우수선수상

광주체고 핀수영팀(사진)이 올시즌 첫 대회인 전국학생핀수영선수권대회에서 무더기 메달을 수확하며 쾌조의 스타트를 끊었다.

광주체고 핀수영팀은 지난 11~12일 제주실내수영장에서 열린 제31회 전국학생핀수영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 6개, 은메달 3개, 동메달 2개 등 총 11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황윤영(3년)은 금 3개와 은 1개를 따내며 대회 우수선수상을 수상했다. 황윤영은 여고부 표면 400m 결승에서 3분28초 93으로 금메달을, 표면 800m 결승에선 7분20초90으로 1위를 차지했다.

황윤영은 김지은(1년), 홍수진(2년), 이세은(3년)과 함께 출전한 여고부 계영 800m에서도 6분32초36의 기록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며 3관왕에 올랐다.

황윤영은 또 양현지(3년), 홍수진, 이세은과 팀을 이룬 여고부 계영 400m에서 2분52초43으로 서울체고(2분51초51)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양현지는 여고부 표면 100m 결승서 42초21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윤만니(1년)는 여고부 짝핀 50m에서 24초34로 1위를 차지했다. 김지은은 여고부 짝핀 400m(4분17초11)와 표면 800m에서 각각 은메달을 추가했다.

홍수진은 여고부 표면 400m(3분32초 47)와 표면 200m(1분38초61)에서 모두 동메달을 차지했다. 최동환 기자

광주도시철도공사 유도, 시즌 첫 대회서 호성적

2023 순천만국가정원컵

금 2·은 1·동 1개 획득

광주도시철도공사 여자유도팀이 올시즌 첫 대회인 2023순천만 국가정원컵 전국유도대회에서 전국 최강 실력을 뽐내며 우수 성적을 거뒀다.

광주도시철도공사 여자유도팀은 지난 13일 순천 팔마체육관에서 열린 2023순천만 국가정원컵 전국유도대회 겸 국가대

표2차선발전 여자일반부에서 금메달 2개와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를 획득했다.

이혜경은 -48kg에 출전해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혜경은 결승에서 유주희(충북도청)를 절반 2개를 따내며 환관승으로 우승을 차지했다.

-70kg에 출전한 김혜미도 금빛 메치기에 성공했다. 김혜미는 결승서 박다운(성동구청)을 안다리후리기 환관승으로 누리며 금메달을 거머쥐었다.

-57kg급의 신유나는 은메달을 획득했

다. 신유나는 결승에서 김주희(용인대)에게 업어치기 절반을 내주며 아쉬운 패배를 당했다.

-63kg급 이주연은 동메달을 차지했다. 이주연은 준결승에서 신채원(용인대)에게 반칙패를 당했다.

이번 대회 1위를 차지한 이혜경과 김혜미는 내년 파리올림픽 출전을 위한 랭킹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는 국제대회 우선 출전권이 부여됐다. 두 선수는 오는 25~26일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열리는 국제 유도연맹(IJF) 2023 트빌리시 그랜드슬램 국제유도대회를 시작으로 올해 각종 국제대회에 참가한다. 최동환 기자

호남대 정연수·양수빈, 아시아유소년·청소년펜싱선수권 은메달

호남대 스포츠레저학과 2학년 정연수와 양수빈이 ‘2023아시아유소년, 청소년 펜싱선수권대회’ 여자 사브르 단체전에서 은메달을 획득했다.

정연수와 양수빈은 지난 6~9일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열린 대회 여자 사브르 단체전에 장지원, 김나애와 팀을 이뤄 출전해 결승에서 우즈베키스탄에 36-45로 패하며 은메달을 차지했다.

한국 사브르 대표팀은 8강전서 홍콩을 45-35로, 4강전서 카자흐스탄을 45-29로 연파하고 결승에 진출했으나 결승에서 홈

팀 우즈베키스탄에 아쉬운 패배를 당했다. 정연수와 양수빈은 경기 후 “대회출발전 모교와 협회에서 많은 격려를 해주셨다. 국제대회 경험이 많지 않아 모든 것이 생소하고 현지 적응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단체전에서 위안이 되는 은메달을 획득해 기쁘다”며 “앞으로 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연수는 이번 대회에 이어 이달 29일~4월 5일까지 불가리아 플로브디프에서 열리는 ‘2023세계유소년, 청소년펜싱선수권대회’에 국가대표로 출전한다. 최동환 기자